월요광장

기업과 국가경영 CEO에게 주는 성공의 비결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경영은 무엇일까? 기업은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

아마도 사람이 무엇일까에 무수한 답변이 있는 것처럼 경영과 기업에 대한 생각과 관점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경영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욕망과 행복의 거의 절대적인 공급자, 구현 현장이 기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상이 경영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영의 첫 번째 길라잡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경영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피터 드러커는 경영을 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목표, 건전하고 올바른 조직구조, 당면하거나 예측되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한국의 유수한 기업에 대한 인사진단을 하면서 이 원칙을 진단 모델의 기준으로 삼아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진단과정에서 다음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우리 기업 구성원들은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둘째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 셋째 우리 회사의 조직구조는 이러한 가치관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건전하고 올바른가? 넷째 우리 회사는 훈련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환경변화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가? 다섯째 우리 회사는 함께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나누고 있는가?

이러한 다섯 가지 질문을 세워 이를 달성하도록 공유비전, 공유목표, 조직, 인사시스템 설계를 조언했던 것이다. 독자들도 자신이 관여하는 모든 조직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 점수를 매겨보자. 즉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가정, 기업, 공공기관, 국가경영의 모든 영역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입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측정된 경영의 점수가 자기경영, 가정경영, 교회경영, 지역경영, 기업경영, 국가경영 등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면 이른바 '경영의 시대'에서 우리는 경영을 하고 있지 않거나 매우 수준 낮은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예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영의 두 번째 길라잡이를 살펴보자. 인사관리의 대가에 속하는 아지리스와 숀은 '경영'을 '학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학습은 1차, 2차, 3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3가지 학습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만이 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차 학습은 이른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상사 지시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이 잘하는 학습이다. 주어진 규칙과 방침을 잘 암기하고 이에 충실히 따르는 학습을 말한다.

2차 학습은 이러한 방침과 규칙이 과연 올바르게 설정된 것인가, 변화된 환경체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의문을 품고 현재의 역동적인 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유효한 새로운 규칙과 방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예전에는 1차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업은 성공했지만 이제는 2차 학습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반은 넘어야 성공한다.

그런데 이제 3차 학습을 하는 구성원이 조직의 1/3은 넘어야 성공하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3차 학습은 나의 학습방식을 학습하는 능력을 말한다. 나는 왜 친절한 사람을 능력있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목소리가 큰 사람은 행동력이 있다고 지레 짐작할까 등 자신의 선입견과 학습기제의 원천적인 시작점을 살펴 편견을 없애고 자신을 속이는 '속임' 학습을 차단하는 패러다임 학습을 하는 것이다.

경영의 세 번째 길라잡이를 살펴보자. 일찍이 WBA(World Business Academy)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기업과 경영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경영의 본분은 모든 창조활동과 지구, 그리고 지구상의 생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다. 기업은 인류가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도 인간은 이 지구별에 더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거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한국은 진실로 이러한 경영의 길라잡이 3개 요소가 구현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의 핵심요소는 자기경영에서부터, 국가경영에까지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비록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크고 광고에서 많이 접하는 기업이어도 이러한 3가지 원칙에서 벗어난 기업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

다행인 것은 진실로 이러한 경영성공에 기반한 기업과 CEO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음이 감지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몸, 마음, 영혼에 책임을 지는 영성경영에 기반한 리더십이 보인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길에 동참하여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잠깐 화려했다가 소멸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이다.

법조칼럼

영화 같은 현실, 현실 같은 영화

이상현
변호사

벚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샘하는 바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겨울은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시위하며 사람들 옷깃을 여미게 한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상태, 현재 이 시점을 거니는 우리에게 차가운 바람은 아픈 현실을 직시하라는 듯 쉽게 물러가지 않고 있다.

최근 흑인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게 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화제다. 1800년대 흑인 음악가였다 노예로 팔려 두 명의 주인 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던 '솔로몬 노섭'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인터넷 포털사이트 영화 정보 참조).

자유자의 몸에서 신분이 잊혀지고 '플랫'이라는 낯선 이름까지 덧붙여져 다른 인생을 살아야했던 그의 이야기는 아직 영화를 접하지 못한 필자에게도 그가 겪었을 비통함과 자존감의 짓밟힘을 상상하게 해준다.

위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신안 염전 일터에서도 발생하였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직업소개소 소개로 염전에 넘겨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몇 번의 탈주 노력에도 실패하다 겨우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어 악몽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 직업소개소 업주에 대한 영장이 일단은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나 경찰은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일부 직업소개소와 염전 업주들이 문제라 할 것이나, 이들이 관계 기관의 방치와 그릇된 일부 주민들의 묵인 속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장기간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염전 노예' 문제로 지칭될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노래 잘하는 가수 임창정과 '거침없이 하이킥'의 배우 최다니엘이 주연한 영화로서 장기 밀매와 생명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 인간의 생명은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 가축과 다름없는 존재로 처참하게 비친다. 인천 보따리상들이 이용하는 배 안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납치되고 그 안에서 장기(臟器)가 분리된 후 중국측 장기 밀매상들에게 팔리고(임창정의 도움으로 살았으나 여자는 결국 죽는다), 그 장기를 이식받아 아버지를 살리려 했던 여주인공 조윤희는 오히려 아버지가 중국 병원내에서 해부되고 장기가 제거되는 경악할 장면을 체험하게 된다. 수원에서 발생하였던 오원춘 사건과 최근 벌어지는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살인 사건들에서 모티브를 딴 듯한 이 영화는 호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듯 영화적 상상력을 앞세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영화는 영화다'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와 현실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액션을 실제의 싸움으로 하기로 하면서 두 주인공의 현실과 영화는 혼동이 되어간다. 우리네 삶은 어떠한가. 위와 같이 최근 일련에 벌어지는 일명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비롯한 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보험금을 챙긴 일련의 가혹 사건 등을 보면서 원래 삶이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변해가는 것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다.

물론 필자가 부정적인 사건들만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눈을 돌려보면 내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사람들의 많은 미담과 TV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연예인들의 아름다운 군무만으로 삶의 위안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꽃피는 봄이 오면 봄이라고 외치고 벚꽃의 향기를 맡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만은 없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영화가 현실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닌 시간이 오기를 바래보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기고

광주의 쾌거, 전국이 부러워하는 명품야구장

김성한
생활체육 광주야구연합회장

프로야구 2014 시즌은 특별하다. 그것은 야구의 본고장 광주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새 야구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새 야구장은 아름다운 외관과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장의 배치, 스탠드의 각도, 편의시설 접근성 같은 세세한 면에서도 한국 야구의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낡고 직직거리는 흑백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최신 대형평면 컬러TV로 바뀐 분위기다. 이제 한국 프로야구 9개 구단은 모두 광주에서의 경기를 고대하고 있다. 기아 타이거스와의 경기는 그래서 전국 야구팬들을 불러모을 것이고, 한국 야구장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목말라하던 모든 야구팬들은 광주경기에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다.

생활체육 광주시 야구연합회 소속 야구팀들은 어제, 즉 새 야구장 개장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이곳에서 야구경기를 벌이는 행복을 맛봤다. 새 야구장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인 만큼 프로야구 경기가 주용도지만 생활체육 야구인들도 틈 나는 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니 한없이 기쁘다. 야구를 좋아하고 또 직접 경기를 해보며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맨땅에 금긋고 하는 야구시합 말고, 정식 구장에서 경기를 해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다. 광주의 생활체육 야구인들은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야구인들이라고 할 만하다.

평생을 야구와 함께 해온 필자로서는 광주 새 야구장 건립이 강운태 광주시장의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강운태 시장은 부임 초 수천 억 원이 들어가는 새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많을 당시, 땅값 부담 없는 무등경기장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개축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할 경우 체육시설의 신축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개축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체육복권 기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 홈팀인 기아 타이거스 측에 경기장 사용료를 선납하는 형식으로 목돈을 끌어냈다. 기아구단으로서는 사실상 자기 팀 구장을 갖게 되는 기발한 계획에 대찬성했음은 물론이다.

강운태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필자를 포함한 야구전문가, 건축가, 환경운동가, 서포터스, 장애인, 여성, 광주지역 경제인, 언론인들을 총 망라한 광주야구장 건립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인내심이 요구되는 여론수렴작업을 2년 넘게 지속했다. 선수와 관중이 모두 만족하는 명품 광주야구장이 만들어진 데는 이 같은 보이지 않는 무수한 노력이 깔려있다.

이제 야구의 종가 광주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더불어 프로야구 각 팀 선수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명경기를 펼치는데 몸을 사리지 않을 것이다, 야구팬들이 매일 밤 기다리는 '오늘의 명장면'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경기장면이 숱하게 등장할 것 같다. 광주시민은 행복하다.

마구잡이 선교활동에 농민들은 "피곤해"

농촌에는 사람이 워낙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조그만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각각 집안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이웃하며 산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개까지 금방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요즘 농촌지역을 돌며 마구잡이식으로 선교활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 외부인이 드나들면 농민들은 당연히 도둑이 아닐까 긴장하게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 자칫 이들을 의심한 사람들이 신고라도 하면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한 직원들도 허탕을 치게 마련이니 힘들긴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겨울이고 농한기라 괜찮아도,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다.

농사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쉬려고 하면, 하필 그 시간대에 맞춰 선교활동을 한다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책자를 돌리곤 한다. 7~8명의 종교인이 무작정 농촌지역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 보니,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일을 하는 농민들을 두 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어떤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니, 범죄예방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도둑으로 보이기 십상이라는걸 왜 모르나?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나친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가울 리만은 없다.

이런 막무가내식 종교활동은 도둑으로 오해받기 쉽고, 고된 농사일로 쉴 시간이 필요한 농민들을 방해할 수 있으니 바쁜 농사철이 되면 가급적 선교활동을 자제해주었으면 한다. 농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서 포교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재필·광주 서구 벽진동

社說

오늘 의료파업, 국민의 생사 안중에 없나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여기에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가세하면서 전국 곳곳의 병·의원에 진료 파행이 불가피해져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하루 휴진한 후 24~29일 6일간 다시 집단휴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에 들어갔다. 의·정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의 쟁점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모두 정부 정책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지난달 원격의료의 국회 논의, 수가 개선 필요성 공감 등을 골자로 한 협의안을 공동 발표했는 데도 의협 집행부와 의사 다수가 반대하면서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물론 의사의 76.69%가 파업에 찬성했다는 건 정부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뿌리 깊은 반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료영리화의 경우 의협 내부의 찬·반이 엇갈리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사실상 영리화되어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게 되고 의료의 공공성은 순식간에 파괴될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이 있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다. 정부도 의료계가 파업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원만한 사태의 해결점은 다시 대화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의료계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의협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선거 앞둔 지자체 '선심용 공사' 나서다니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지자체가 대규모 '선심성' 공사를 서둘러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일부 공무원이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주변에 배포해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 장흥, 곡성군 등이 가용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을 잇따라 입찰공고 했다고 한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임기가 석 달 남짓인 현직 단체장이 예산을 대거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다. 다시 출마할 단체장의 선거운동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8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회산백련지에 2000㎡ 규모의 물놀이장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3700㎡ 규모의 파도 풀을 시설하겠다며 2차 추경에 14억2000여만 원을 반영했다. 예산까지 이월시켜 이번 주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연꽃축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서둘러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흥군청 한 직원은 연초 선거와 관련한 방송국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SNS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직원은 한 방송국이 실시한 고흥군수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자체가 선심성 예산을 마구 쓰는 것은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 이후 시급히 예산을 사용할 곳이 있는 데도 돈이 없다면 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유도하는 것 또한 엄연한 불법이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더욱 엄정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공직사회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집중 감시해야 하며 주민들도 '선심'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속오군과 예비군

조선 초기 어느 산간마을 어귀에 방이 붙었다.

'다음과 같이 잡색군을 편성한다. 향리, 향교의 생도, 관가나 개인에 속한 노비,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 군역을 지지 않는 백성은 잡색군에 지원하기 바란다.'

방을 보던 남자들이 수근거렸다. "잡색군이 뭐지. 온갖 사람이 마구 뒤섞인 군대라는 말 같은데. 그럼 정규군은 아니겠군."

조선 초기의 잡색군은 국경이나 해안지대와 달리 군사력이 잘 미치지 않는 내륙지방을 방위할 목적으로 생겨난 지방 군대였다. 일종의 예비군이었는데, 세종 이후 정규군이 크게 늘면서 점차 쓸모가 없어졌고 세조 때 이후로는 유명무실해졌다.

조선에 다시 예비군이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 때였다. 선조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들이 '기효신서'라는 병서에 따라 조직된 군대를 움직여 평양에서 왜적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조는 이 내용을 유성룡에게 풀이하게 한 뒤 '기효신서를 참고로 조선의 군사제도를 개편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래서 중앙에는 훈련도감을 신설하고 지방에는 속오군을 두었다. 속오군은 군역을 지지않는 양인과 천인 가운데 군사훈련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였다. 평상시에는 군포만 바치게 하고 비상시에는 소집해 군역을 치르게 한 것이다. 황해도지역부터 편성해 곧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정유재란 때에는 이들이 실전에 투입돼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는데 한몫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무관 출신 관리 대신 지방 수령이 속오군의 관리·조직·훈련을 모두 맡으면서 기능이 약해져 영조 때 이후 사라지게 됐다.

잡색군과 속오군은 1968년 향토예비군이란 제도로 부활했다.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제대한 후 8년간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훈련을 받게 한 것이다.

향토예비군 제도가 46년만에 대폭 바뀐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훈련 우수자의 30%까지 조기 퇴소시키는 반면 불합격자는 집중훈련을 시키기로 했다. 급식비와 훈련비도 소폭 올리기로 했다.

조그마한 당근책이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다. 600년 전통의 역사와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될 듯 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2-8005〉
정치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